

# 중국 농촌주민 소득수렴의 동서간 비교분석

최성일(한국해양대학교)·조준현(부산대학교)·朴慧蘭(부산대학교)

---

## 논문 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삼대격차 문제이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격차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소득이 성·시·자치구간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전국 및 지역별로, 또 기간별로는 200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78~2011년간 중국의 농촌소득은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 이전에는 중부지역의 소득수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이후에는 서부지역의 수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부대개발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역내 소득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격차와 도농격차가 심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노력이 요구된다.

주제어 : 중국경제, 농촌경제, 소득격차, 도농격차, 서부대개발, 소득수렴

## I. 머리말

1978년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30여년동안 중국경제는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47.2조 위안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경제의 고도성장 이면에는 지역간·도농간·계층간 격차 등 이른바 삼대격차(三大差距)로 불리는 경제 불균형의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다.<sup>1)</sup> 지난 2012년 11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하여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한 18차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민생(民生)'이었다는 점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물론 경제 불균등에 대한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문제인식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6차 전당대회는, 중국의 일부 연해지역은 중산층 수준인 '샤오강(小康)'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아직 전국적인 범위에서는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지역간 균형개발과 농촌경제의 발전을 향후의 주요 정책과제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중국정부가 삼대격차 문제의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과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도농격차와 지역격차라는 이중의 격차에 처해 있다. 2002년 공산당 16대를 계기로 출범한 후진타오(胡錦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사업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라는 계획을 추진했다.<sup>2)</sup> 지역 및 농촌개발의 성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절대적 수준에

1) 중국의 격차를 구역(지역)간, 산업간, 도농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여기서 구역(지역)간 격차는 동서 격차로 표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鄧翔, "中國地區差距的分解及其啓示," 『四川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2002, pp. 31~36.

2)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서부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5년 12월 발표된 <中共中央國務院關於推進社會主義新農村建設的若干意見>이다.

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는 소득분배의 불균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즉 하나는 다른 지역과의 불균등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내에서의 불균형문제이다.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의 소득 개선과 동서격차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는 최성일(2010)과 崔成日 外(2012)를 들 수 있다<sup>3)</sup>. 중국경제의 소득수렴과 관련된 연구로는 김현석·장지용(2012), 김상욱(2012), 심승진(2005), 유해협(2011) 등의 연구가 있다.<sup>4)</sup> 연구마다 분석결과가 모두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선행 연구는 서부지역의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동서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내 연구의 경우는 張慕(2000), 李善同(2003), 魏后凱(2003), 劉秀蘭(2005), 丁任重(2007) 등이 서부대개발과 관련된 지역경제발전을 다루고 있다.<sup>5)</sup> 반면에 지역내 소득분배 문제를 분석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비교적 최근 연구로 조윤기·배규한(2009), 조준현 외(2012)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sup>6)</sup> 특히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격차에 처해 있는 서부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국내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말 그대로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聂华林(2007)과

- 3) 최성일, “중국 서부대개발 1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5권 제2호, 2010, pp. 25~46; 崔成日 外, “關於西部大開發十年的成果分析與評價.” 『CHINA연구』 제12집, 2012, pp. 237~267.
- 4) 김현석·장지용, “비선형 모형을 이용한 중국 소득수렴 가설 검증.”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2012, pp. 169~185; 김상욱, “중국의 지역경제발전격차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2, pp. 133~156; 심승진, “중국의 성·시·구간 소득수렴 가설의 검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 pp. 143~166; 유해협, “중국의 소득수렴성에 관한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5) 張慕, 『中国地带差距与中西部开发』, 清华大学出版社, 2000; 李善同, 『西部大開發與地區協調發展』, 商務印書館, 2003; 魏后凱, 『中国西部工业化与软环境建设』,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3; 劉秀蘭, 『西部地區產業結構問題研究』, 西南交通大學出版社, 2005; 丁任重, 『西部大开发与地区经济协调发展问题研究』, 西南财经大学出版社, 2007.
- 6) 조윤기·배규한, “중국 지역경제의 수렴성 및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pp. 251~288; 조준현 외,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의 성·시·구간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수렴가설의 검증.” 『현대중국연구』 제13권 제2호, 2012, pp. 267~297.

聂华林 外(2007) 정도를 들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중국 농촌주민의 소득이 전국 및 지역간에 얼마나 수렴하고 있는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서부지역 농촌소득이 성·시·자치구 간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어지는 2장에서는 최근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격차 및 도농격차의 추이를 간략히 정리하고, 3장에서는 전국 및 동·중·서부 지역별 성·시·자치구간 농촌주민소득의 수렴과 발산 여부를 실증분석해 보고자 한다.

## II. 중국의 지역격차 및 도농격차 추이

### 1. 지역격차 추이

중국의 지역격차 문제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동부와 서부지역 간의 격차이다. 그래서 먼저 <표 1>에서 중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확인해 보았다. 2000년부터 실시된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서부지역의 소득은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간 지역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어 오다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0~2011년간 서부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은 16.5%로 전국의 14.7%와 동부지역의 15.6%보다 높다. 전국소득을 100으로 본 서부지역의 소득비중도 2000년의 16.8%에서 2011년에는 21.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7) 聂华林, 『中国西部三農问题调研报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聂华林外, 『中国西部新农村建设概论』,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표 1> 동부 및 서부지역 소득의 비중 변화

(단위 : %)

	지역소득				1인당 소득	
	동부/전국	서부/전국	서부/동부	동서격차	서부/전국	서부/동부
2000	56.1	16.8	29.9	39.3	59.5	40.9
2001	58.0	17.1	29.5	40.9	61.0	40.5
2002	59.1	17.2	29.1	41.9	61.6	40.3
2003	61.1	17.4	28.6	43.6	62.4	39.6
2004	62.2	17.9	28.7	44.3	64.3	40.2
2005	63.8	18.1	28.4	45.7	65.7	40.3
2006	64.0	18.7	29.1	45.4	68.1	41.8
2007	62.1	18.5	29.8	43.6	67.6	43.2
2008	61.8	19.2	31.1	42.6	70.4	45.6
2009	62.2	19.6	31.6	42.5	71.9	46.7
2010	62.4	20.3	32.5	42.1	75.2	49.6
2011	62.1	21.2	34.1	40.9	78.7	52.3

주 : 동서격차=(동부/전국)비중 - (서부/전국)비중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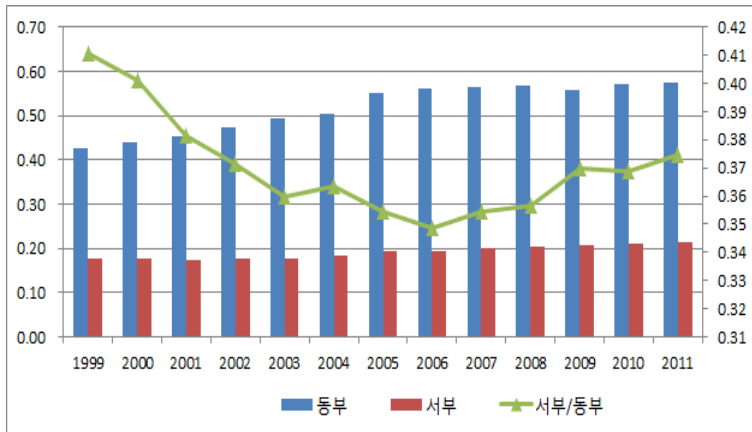
반면에 동부지역 소득에 대한 서부지역의 소득비중은 같은 기간 29.9%에서 2005년 28.4%까지 하락한 이후 2011년에는 34.1%까지 증가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동부지역 소득의 전국비중과 서부지역의 전국비중의 차이로 계산한 동서격차는 2000년 39.3% 포인트에서 2005년까지는 45.7% 포인트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점차로 축소되어 2011년에는 40.9% 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1인당 소득의 경우도 서부지역의 전국비중은 2000년 59.5%에서 2011년 78.7%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동부지역에 대한 비중은 2000년 40.9%에서 2003년 39.6%까지 감소한 후 2011년 52.3%까지 상승했다.

<그림 1>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최종소비의 비중이다. 10·5계획이 실시되기 직전인 2000년 현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최종소비지출은 각각 2조 7,059억 위안과 1조 860억 위안이다. 2011년 동부와 서부지역의 최종소비지출은 각각 13조 1,438억 위안과 4조 9,218억

위안으로 연평균 17.1%와 16.3% 증가하였다. 동부지역에 대한 서부지역의 비중은 2000년의 0.40에서 2006년 0.35까지 감소했다가 2011년에는 0.37까지 회복했다.

<그림 1> 동부 및 서부지역 최종소비지출의 비중 변화

(단위 : %)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지역소득 수준에서 동서 격차의 이러한 추이는 서부대개발사업 초기에 사업의 실시에 따른 예상되는 결과를 두고 상반된 견해가 있었던 점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서부대개발사업은 실시 초기에 서부지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상반된 견해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서부지역은 후발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서부대개발사업이 실시되면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초래된 불합리한 지역격차를 줄이면서 개선되고 조화로운 지역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sup>8)</sup>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서부대개발사업은 지역격차를 근

8) 鄧仕禮, “地區差距與西部的追趕速度.” 『社會科學戰線』 第6期, 2004, pp. 63~69; 曹桂全, “中國地

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부대개발사업이 실시되면 서부 지역에 있는 생산요소들이 발전된 동부지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서부대개발사업의 실시는 단지 서부지역내의 발전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을 뿐이며, 지역간의 발전 격차는 완화는커녕 오히려 확대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sup>9)</sup>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2005년경 까지 서부대개발사업의 실시로 인한 동서부 지역의 격차는 오히려 더 확대되었다. 하지만 2005년경 이후부터 지역격차가 축소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쪽으로든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만 두 번째 견해 가운데 서부대개발 계획이 서부지역내의 발전격차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점과 지역간의 발전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의 실증분석 결과와 관련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도농격차 추이

<표 2>는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1인당 소득을 비교하고 도시주민의 1인당 소득이 농촌주민 소득의 몇 배인지를 지역별로 계산한 것이다.<sup>10)</sup> 먼저 전국의 경우를 보면 앞의 지역격차와는 달리 도농격차는 2000년 이후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2000년 당시 전국의 도시주민의 1인당 소득은 6,280위안으로 농촌주민의 2,253위안에 비해 2.79배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수입은 21,810위안으로 농촌주민의 6,977위안에 비해 3.13배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정부가 도농격차의 해소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區差距變動的系統分析與地區政策選擇.”『中國軟科學』第12期, 2001, pp. 87~91.

9) 范劍勇·朱國林, “中國地區差距演變及其結構分解.”『管理世界』第7期, 2002, pp. 37~44; 安志國·肖岳峰, “東西部地區發展差距的制度因素分析.”『經濟師』第6期, 2004, pp. 97~98.

10) 『中國統計年鑑』에서는 농촌주민소득은 순소득으로 도시주민소득은 가처분소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장기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된다.

하고 그 결과 도농격차는 거의 개선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고찰해 보면 동부지역의 경우는 2000년 2.26배에서 2009년 2.61배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0년부터 줄어들어 2011년에는 2.47배를 기록했다. 반면에 서부지역의 경우는 도농격차가 동부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그 크기는 2000년 3.46배에서 2003년 3.77배까지 증가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3.36배로 2000년에 비해 오히려 배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2> 도시 및 농촌주민 1인당 수입 및 지역별 도농격차 추이

(단위 : 위안, 배)

	도시주민 1인당 평균수입	농촌주민 1인당 평균수입	전국 (도시/농촌)	동부	서부
2000	6,280	2,253	2.79	2.26	3.46
2001	6,860	2,366	2.90	2.34	3.65
2002	7,703	2,476	3.11	2.39	3.73
2003	8,472	2,622	3.23	2.49	3.77
2004	9,422	2,936	3.21	2.52	3.74
2005	10,493	3,255	3.22	2.51	3.69
2006	11,760	3,587	3.28	2.56	3.71
2007	13,786	4,140	3.33	2.58	3.71
2008	15,781	4,761	3.31	2.60	3.66
2009	17,175	5,153	3.33	2.61	3.67
2010	19,109	5,919	3.23	2.55	3.50
2011	21,810	6,977	3.13	2.47	3.36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각년도.

지역격차와 도농격차라는 이중격차의 현실에 놓여 있는 서부지역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2000년 당시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1,632위안으로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3,476위안에 비해 47.0%, 전국평균 2,253위안에 대해서는 72.4%를 접하였다. 2011년 현재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1인당 순수입은 5,221위안으로 전국의 6,977위안에 비해서는 74.8%, 동부지역의 10,486위안에 비해서는 49.8%를 기록하고 있다. 2000~2011년간 동부와 서부지역 농촌주민 순수입의 비중으로 보면 지역간 농촌주민의 소득격차는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절대액으로 보면 1,843위안에서 5,265위안으로 지난 11년간 약 2.1배에서 약 2.9배로 확대되었다.

<표 3> 서부지역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의 비중 변화

(단위 : 위안, %)

년도	전국	동부	서부	전국대비 격차		동부대비 격차	
				절대액	비중	절대액	비중
2000	2,253	3,476	1,632	621	72.4	1,843	47.0
2001	2,366	3,687	1,693	673	71.5	1,994	45.9
2002	2,476	3,916	1,792	684	72.4	2,125	45.8
2003	2,622	4,160	1,921	701	73.3	2,239	46.2
2004	2,936	4,565	2,136	800	72.7	2,429	46.8
2005	3,255	5,123	2,356	899	72.4	2,768	46.0
2006	3,587	5,656	2,576	1,011	71.8	3,081	45.5
2007	4,140	6,396	3,004	1,136	72.6	3,392	47.0
2008	4,761	7,239	3,481	1,280	73.1	3,758	48.1
2009	5,153	7,855	3,816	1,365	73.5	4,067	48.2
2010	5,919	8,926	4,418	1,527	74.2	4,533	49.2
2011	6,977	10,486	5,221	1,756	74.8	5,265	49.8

자료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각 년도 및 各省市自治區 통계자료.

도농격차의 이러한 지역별 차이와 농촌주민 소득의 추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한다. 즉 동부지역에서는 지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도시주민보다 농촌주민의 소득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반대로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2003년 이후부터는 도시주민 소득의 증가속도보다 농촌주민의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전체의 농촌주민 소득수준이 수렴한다면, 동부의 농촌주민소득은 하향평준화한 반면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서부대개발 이후 농촌주민소득의 실질적인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 Ⅲ. 실증모형과 분석결과

#### 1. 분석모형 및 자료

본 논문에서는 중국 농촌지역의 경제적 수렴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Barro & Sala-i-Martin(1995)과 Barro, Mankiw & Sala-i-Martin(1995) 등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생산함수를 가정하였다.<sup>11)</sup> 이 모형은 생산요소로서 자본스톡만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의 가동률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생산함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고 있어서 분석에 편의성이 크다.

$$Y(t) = K(t)^\alpha \cdot (A(t) \cdot L(t))^{1-\alpha} \quad (1)$$

여기서 Y는 총생산량을 의미하고 K는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농촌의 물적 자본스톡을 의미한다. A는 기술계수이고 L은 농촌의 노동인구수이며 두 변수를 곱해줌으로써 효율노동투입이 된다. 인적자본은 중국의 농촌에서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모형에서 생략하였다.

기술 A와 노동량 L는 각각 g와 n의 고정비율로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래의 (2)식과 (3)식처럼 표현할 수 있다.

$$A(t) = A_0 \cdot e^{gt} \quad (2)$$

$$L(t) = L_0 \cdot e^{nt} \quad (3)$$

11) Barro R. J.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Hill, Inc, 1995; Barro, R. J., G. Mankiw & X. Sala-i-Martin, "Capital Mobility in neoclassical models of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 no.1, 1995. p. 104.

(1)식의 양변을  $A(t)L(t)$ 로 나누고 정리를 하면 효율단위로서의 생산함수가 된다.

$$y_t = k_t^\alpha \quad (4)$$

생산량 가운데 자본저축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저축률과 이미 존재하는 자본의 일정한 감가상각분의 차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

$$\dot{K}(t) = sY(t) - \delta K(t) \quad (5)$$

위의 식들을 이용하여 (6)식과 같이 유효노동단위당 자본의 변화량을 도출할 수 있다.

$$\dot{k} = sk_t^\alpha - (\delta + n + g)k_t \quad (6)$$

정상상태에서 효율자본스톡은 일정하다고 하면  $\dot{k} = 0$ 이므로 아래와 같이 도출된다.

$$k^* = [s/(\delta + n + g)]^{\frac{1}{1-\alpha}} \Rightarrow y^* = [s/(\delta + n + g)]^{\frac{\alpha}{1-\alpha}} \quad (7)$$

(8)식은 (7)식에 로그 값을 취하여 테일러미분하고 미분방정식을 풀 것이다.

$$\ln[y(t)/y(t-1)] = -(1-e^{-\lambda}) \cdot \ln[y(t-1)] + (1-e^{-\lambda}) \cdot \frac{\alpha}{1-\alpha} \ln[s/(n+g+\delta)]$$

(8)

여기서  $\lambda = (1 + \alpha)(n + g + \delta)$ 는 수렴의 속도를 나타내며 자본탄력성 ( $\alpha$ ), 기술진보율( $A$ ), 감가상각률 ( $\delta$ ), 노동인구성장률( $n$ )로 구성된다. 이를 단순화하고 교란항을 추가하면 (9)식과 같은 추정식이 얻게 된다.

$$\ln[y(t)/y(t-1)] = c_i + \beta \cdot \ln[y_{i,t-1}] + \eta_i + v_{i,t} \quad (9)$$

(9)식에서  $c_i = (1 - e^{-\lambda}) \cdot \frac{\alpha}{1 - \alpha} \ln[s/(n + g + \delta)]$ 으로 정의된다. 이는 부존자원 혹은 관찰되지 않는 요소 등을 포함한다. 아래 첨자  $i$ 는 각각의 성시를 의미하고,  $t$ 는 시간을 의미한다.  $\eta_i$ 와  $v_{i,t}$ 는 각각  $i$ 지역만이 갖는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효과와 지역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식을 이용하여 지역간 소득수렴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베타( $\beta$ )값이 부(-)의 값이면 수렴의 특성을 나타내고 정(+)의 값이면 발산의 특성을 나타낸다.

$$\lambda = -\log(1 + \beta) \quad (10)$$

(10)식은 수렴의 속도를 나타낸다. 중국 농촌의 각 지역이 수렴의 특성을 나타내면  $\lambda$ 의 값은 정(+)의 부호로 나타나고 수렴특성이 강할수록  $\lambda$ 값이 커진다. 반대로 중국 농촌의 각 지역이 발산의 특성을 나타내면  $\lambda$ 의 값은 부(-)의 부호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발산의 특성이 강할수록 부(-)의  $\lambda$ 값이 커진다.

본 논문의 분석대상은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의 농촌지역이며, 분석기간은 1978~2011년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모두 각 년도의 『中國統

計年鑑』과 <中國經濟網> 및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을 통해 얻은 성·시·자치구별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이다.<sup>12)</sup>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중국의 지역격차 문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동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이다. 그러나 지역격차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 중부지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sup>13)</sup> 한편 분석기간은 1978~2000년과 2001~2011년으로 나누어 기간별로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이는 2001년부터 제10차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부터 시작된 서부대개발사업, 2002년의 WTO 가입, 후진타오 정부의 출범 등이 2001년을 중심으로 1~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어서 2001년을 기점으로 구분하였다.

## 2. 실증분석 결과

실증분석은 EGLS(estimated generalized least squares)와 횡단면 가중치(cross-section weights)를 이용한 패널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패널분석에서는 오차항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추정형태가 달라진다. 오차항  $\epsilon_{i,t}$ 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11)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eta_i$ 는  $i$  지역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효과를 나타내며,  $v_i$ 는 지역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12)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北京: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中國經濟網([http://district.ce.cn/zg/201208/21/t20120821\\_23606435.shtml](http://district.ce.cn/zg/201208/21/t20120821_23606435.shtml)); 中國國家統計局,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北京:中國統計出版社, 2010.

13) 지역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31개 성·시·자치구는 75계획 당시 경제발전 수준과 지리적 위치를 서로 결합시키는 원칙에 따라 전국을 동부, 중부, 서부의 3개 경제지역으로 구분한 전례를 따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東部지역은 연해지역인 北京·天津·河北·遼寧·上海·江蘇·浙江·福建·山東·廣東·海南의 11개 성시구이며, 中部지역은 山西·吉林·黑龍江·安輝·江西·河南·湖北·湖南의 8개 성시구이고, 西部지역은 內蒙古·廣西·重慶·陝西·甘肅·青海·寧夏·新疆·四川·雲南·貴州·西藏의 12개 성시구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東北지역(遼寧, 吉林, 黑龍江)을 별도로 분류하여 4개 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epsilon_{i,t} = \eta_i + v_{i,t} \sim iid(0, \sigma^2) \quad (11)$$

추정방법은 개별효과를 나타내는  $\eta_i$ 가 고정적인지 아니면 확률적으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률효과모형은 개별효과  $\eta_i$ 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회귀식의 설명변수들과  $\eta_i$ 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고정효과모형은 횡단면 단위들이 공통의 기울기를 가지나 절편이 각기 다르다고 가정을 한다. 개별효과  $\eta_i$ 가 고려되는 대상에 따라 변화하고 주어진 기간 또는 대상에서는 고정적이라 가정하므로 설명변수와 개별효과는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패널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각각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 혹은 확률효과모형을 선택한다. 본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역시 성·시·자치구별, 연도별 자료로 구성된 패널자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모형을 먼저 추정하였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였다. 하우스만 검정은 설명변수와 개별변수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귀무가설은 “설명변수와 개별변수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이 상관관계가 없다”이다. 검정결과를 보면 전국과 3개 지역의 수렴모형의 검정값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설명변수와 개별 지역의 미관찰 특성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임의효과에서 추정된 설명변수의 추정치는 내생성 편의를 포함하므로 모든 기간과 지역에 대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각 지역의 경제적 수렴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베타( $\beta$ ) 수렴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베타 수렴은 1인당 실질 GDP가 낮은 지역이 높은 지역보다 더 빠른 경제성장률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조건부 수렴의 증거는 모든 경우에 자주 나타나지만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구성되는 경우 또는 개도국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절대적 수렴의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sup>14)</sup>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beta < 0$ 이면 수렴,  $\beta > 0$ 이면 발산으로 해석된다.<sup>15)</sup> 분석 결과는 <표 4> 이하에 있다. <그림 2> 이하는 분석결과를 도해한 것이다.

<표 4> 수렴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978~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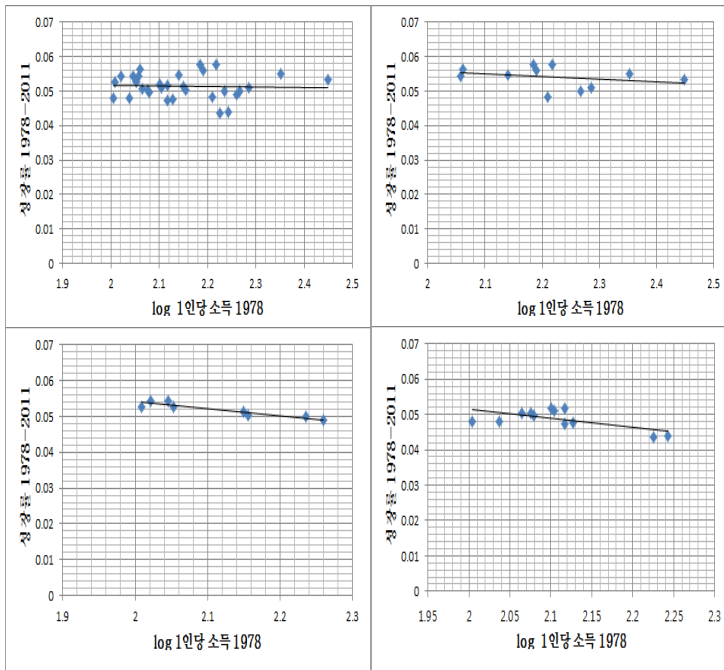
변수	전국		동부		중부		서부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alpha$	1.17*** (11.77)	0.17*** (4.94)	1.19*** (6.30)	0.24*** (5.17)	2.92*** (8.56)	0.39*** (4.42)	1.17*** (6.89)	0.25*** (4.24)
$\beta$	-0.15*** (-10.58)	-0.01 (-1.54)	-0.15*** (-5.64)	-0.02** (-2.57)	-0.41*** (-8.21)	-0.04*** (-3.10)	-0.16*** (-6.23)	-0.02** (-2.37)
$R^2$	0.58	0.002	0.65	0.02	0.73	0.04	0.60	0.01
Hausman Test	-	113.58***	-	26.70***	-	58.97***	-	33.26***
Durbin-Watson Stat	2.08	2.08	1.92	1.86	2.00	2.22	2.02	2.01
$\lambda$	0.07	0.004	0.07	0.01	0.23	0.02	0.08	0.01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함.

14) 조건부 수렴과 절대적 수렴의 개념에 대해서는 심승진, “중국의 성·시·구간 소득수렴 가설의 검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 pp. 143~166과 조준현 외,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중국 서부 지역의 성·시·구간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수렴가설의 검증.” 『현대중국연구』 제13권 제2호, 2012, pp. 267~297을 참조.

15) 그런데 Barro R. J.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Hill, Inc, 1995와 Barro, R. J., G. Mankiw & X. Sala-i-Martin, “Capital Mobility in neoclassical models of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 no.1, 1995 등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본 논문의 모형은 같은 생산함수를 이용한 심승진(2005)이나 조준현 외(2012)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두 논문에서는  $\beta < 1$ 이면 수렴,  $\beta > 1$ 이면 발산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beta < 0$ 이면 수렴,  $\beta > 0$ 이면 발산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의 방법은 王争钱彦敏, “中国省际收敛与分布的“极化”特征, 1978-2004: 趋势及成因.” FED Working Papers Series, 2006과 같다. 그러나 핵심적인 측면에서 두 모형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2> 수렴모형 실증결과 도해 (1978~2011년)



주 : 전국-동부-중부-서부의 순임.

<표 4>는 1978~2011년간 중국 전체의 농촌주민 소득에 대한 수렴성 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다시 지역별(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이 4개 모형에서 범위가 0.58~0.73 사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다.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검증하는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 또한 1.92~2.08사이므로 시계열의 자기상관 문제도 없다. 분석결과를 보면 1978~2011년간 중국의 성·시·자치구 간 농촌주민 소득은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수렴하고 있다. 먼저 전국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에서 베타( $\beta$ )값이 -0.15로 나와 위 기간 동안 농촌주민의 소득이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수렴의 속도를 의미하는  $\lambda$  값

은 0.07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 지역 모두에서 농촌주민의 소득이 수렴하고 있었는데, 동부와 서부의 수렴 정도와 속도는 전국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중부지역의 경우는 수렴의 정도 (-0.41) 및 속도(0.23)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표 5> 수렴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978~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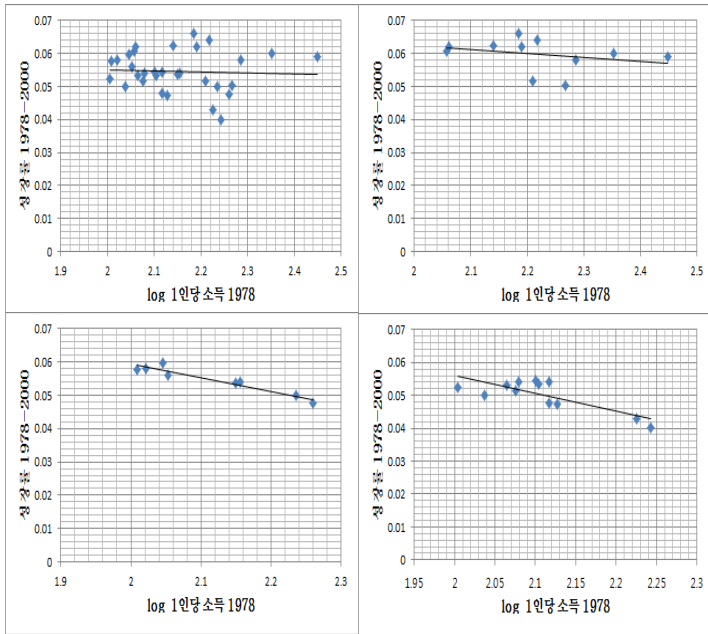
변수	전국		동부		중부		서부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alpha$	1.15*** (9.14)	0.17*** (3.68)	1.32*** (5.17)	0.28*** (4.26)	3.23*** (7.66)	0.59*** (4.62)	1.15*** (5.55)	0.39*** (4.65)
$\beta$	-0.16*** (-8.17)	-0.01 (-1.15)	-0.18*** (-4.66)	-0.02** (-2.31)	-0.49*** (-7.37)	-0.07*** (-3.70)	-0.17*** (-5.01)	-0.04*** (-3.36)
$R^2$	0.56	0.002	0.63	0.02	0.73	0.07	0.58	0.04
Hausman Test	-	69.10***	-	17.70***	-	43.07***	-	15.99***
Durbin-Watson Stat	2.10	2.10	1.89	1.86	1.96	2.26	2.04	2.03
$\lambda$	0.08	0.004	0.09	0.01	0.29	0.03	0.08	0.02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함.

<표 5>는 1978~2000년간 중국 농촌의 전국과 지역별 수렴성 여부를 보여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의 범위가 0.56~0.73사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비교적 높다. 더빈-왓슨(Durbin-Watson) 통계량이 1.89~2.10사이므로 시계열의 자기상관문제도 전체시기와 마찬가지로 거의 없다. 수렴성의 양상은 전국의 경우 전체시기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체시기와 비슷하게 동부와 서부지역에서는 수렴의 정도와 속도가 전국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왔으나 중부지역의 경우는 수렴의 정도와 속도가 전체시기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2001년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같은 방식으로 전국의 경우와 지역별 농촌주민 소득의 수렴성을 검토해 보았다.

<그림 3> 수렴모형 실증결과 도해 (1978~2000년)



주 : 전국-동부-중부-서부의 순임.

<표 6>은 2001~2011년간 중국 농촌의 전국과 지역별 수렴성 여부를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는 <표 4> 및 <표 5>와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의 범위가 0.79~0.87사이므로 모형의 설명력은 높다. 그러나 더빈-왓슨 통계량이 1.65~2.20사이므로 동부지역의 경우 약간의 자기상관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차이는 2001년 이전까지는 수렴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던 중부지역의 농촌 소득 수렴 정도가 감소한 반면, 동부 및 서부지역의 농촌소득 수렴의 정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수렴의 속도에서도 동부와 서부지역이 중부지역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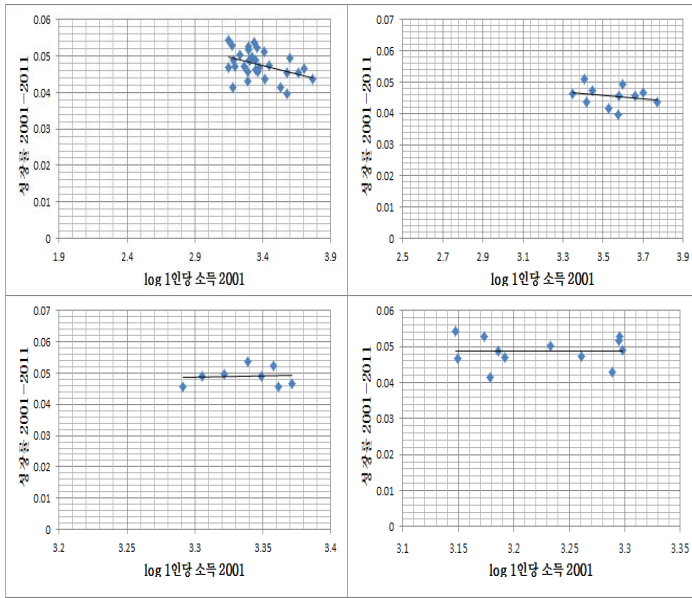
<표 6> 수렴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2001~2011년)

변수	전국		동부		중부		서부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고정	확률
$\alpha$	1.69*** (5.46)	0.17*** (4.77)	2.05*** (4.07)	0.09 (1.17)	1.55** (2.18)	-0.24 (-1.11)	1.89*** (3.80)	-0.08 (-0.63)
$\beta$	-0.19*** (-5.11)	-0.01* (-1.72)	-0.23*** (-3.86)	0.002 (0.26)	-0.18** (-2.02)	0.04 (1.62)	-0.22*** (-3.57)	0.02 (1.51)
$R^2$	0.79	0.01	0.82	0.001	0.87	0.03	0.80	0.02
Hausman Test	-	24.49***	-	15.53***	-	7.03***	-	16.77***
Durbin-Watson Stat	2.06	2.00	1.65	1.47	1.83	1.93	2.20	2.14
$\lambda$	0.09	0.004	0.11	-0.001	0.09	-0.02	0.11	-0.01

주 1)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를 의미함. 2) 괄호 안의 값은 t-통계량을 의미함.

이러한 결과는 단지 중국의 성·시·자치구 간 농촌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수렴해 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 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이 분석기간에 걸쳐서 개선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앞서 고찰한 지역소득격차의 추이와 도·농간 소득격차 및 농촌주민소득의 지역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서부 간의 소득은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까지는 격차가 확대되었으나 이후부터는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도농간 소득격차는 전국의 경우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어 온 반면 서부지역에서는 2003년 이후 개선되어 오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동부와 서부의 농촌주민의 소득은 절대액으로는 격차가 커지고 있지만, 동부지역 농촌주민 소득에 대한 서부지역 농촌주민 소득의 비중에서는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를 원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 4> 수렴모형 실증결과 도해 (2001~2011년)



주 : 전국-동부-중부-서부의 순임.

먼저 서부지역의 경우 서부대개발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역내 소득 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도농격차의 감소와 함께 농촌주민 소득의 수렴이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역소득의 수렴 정도와 지역의 도시주민 소득의 수렴정도를 고찰해 보아야 좀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적어도 서부지역의 농촌주민 소득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각 성시자치구별로 소득수준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수렴은 상대적으로 부유의 평등화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어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다음으로 동부지역의 경우는 빠른 공업화의 반작용으로 지역내 도농격차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심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부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촌주민 소득의 수렴은 빈곤의 평등화의 결과로 보아야 할 여지가 많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동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수준이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수준보다 훨씬 높으며, 그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 IV. 맺는 말

최근 중국경제의 가장 심각한 현안은 삼대격차 즉 지역격차, 도농격차, 계층격차의 문제이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농촌주민들은 도농격차와 지역격차의 이중격차에 시달리고 있다. 2000년부터 실시된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서부지역의 소득은 상당 수준 증가하였다. 또 동서부간 지역소득격차도 2005년을 기점으로 하여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농격차이다. 지역 및 농촌개발의 성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절대적 수준에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상대적인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또 소득분배의 개선은 다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다른 지역과의 불균등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내에서의 도농간·계층간 불균형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중국 전체 및 동·중·서부지역 내에서 각각 농촌주민의 소득이 수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농촌주민소득이 지역별로 성·시·자치구간에 수렴하는지 여부를 2001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의 이중고에 놓여 있는 서부지역

농촌주민의 소득이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성·시·자치구 간에 어떻게 수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결과 1978~2011년간 중국의 농촌소득은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중·서부 모두에서 농촌주민의 소득은 성·시·자치구간에 수렴하고 있다. 수렴의 정도는 중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1년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보면, 2011년 이전에는 중부지역의 소득수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01년 이후에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수렴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부지역의 경우는 지역내 도농격차의 심화로 농촌주민소득이 빈곤의 평등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서부대개발사업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역내 소득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여전히 지역간 격차와 도농간 격차가 심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농촌소득 요인을 보면, 토지면적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보다 기술진보와 1인당 자본 등 생산성 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부지역 농촌소득 개선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하겠다. 또한 농촌내에서도 농업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상욱, “중국의 지역경제발전격차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동북아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2.
- 김현석·장지용, “비선형 모형을 이용한 중국 소득수렴 가설 검증.” 『경제연구』 제30권 제4호, 2012.
- 심승진, “중국의 성·시·구간 소득수렴 가설의 검증.”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5.
- 유해협, “중국의 소득수렴성에 관한 분석.”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윤기·배규한, “중국 지역경제의 수렴성 및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동북아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2009.
- 조준현, “최근 중국의 농촌경제 및 농촌정책과 향진기업.” 『현대중국연구』 제9권 제2호, 2008.
- 조준현·박혜란·강상목, “서부대개발사업 이후 중국 서부지역의 성·시·구간 소득격차에 대한 연구: 수렴가설의 검증.” 『현대중국연구』 제13권 제2호, 2012.
- 최성일, “중국 서부대개발 10년의 평가와 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15권 제2호, 2010.
- 崔成日·曹俊鉉·朴慧蘭, “關於西部大開發十年的成果分析與評價.” 『CHINA연구』 제12집, 2012.
- 허문구·최윤기·장재홍, 『경제성장과 지역격차』, 서울:산업연구원, 2004.
- Barro R. J.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Hill, Inc, 1995.
- Barro, R. J., G. Mankiw & X. Sala-i-Martin, “Capital Mobility in neoclassical models of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5 no.1, 1995.
- 鄧仕禮, “地區差距與西部的追趕速度.” 『社會科學戰線』 第6期, 2004.
- 鄧翔, “中國地區差距的分解及其啓示.” 『四川大學報』 (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2002.
- 范劍勇·朱國林, “中國地區差距演變及其結構分解.” 『管理世界』 第7期, 2002.
- 聂华林, 『中国西部三農問題調研報告』, 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 聂华林·張壽馬草原, 『中国西部新农村建設概論』,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7.
- 安志國·肖岳峰, “東西部地區發展差距的制度因素分析.” 『經濟師』 第6期, 2004.
- 王争·钱彦敏, “中国省际收敛与分布的“极化”特征, 1978-2004: 趋势及成因.” *FED Working Papers Series*, 2006.
- 魏后凯, 『中国西部工业化与软环境建設』,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3.

- 劉秀蘭, 『西部地區產業結構問題研究』, 西南交通大學出版社, 2005.
- 李善同, 『西部大開發與地區協調發展』, 商務印書館, 2003.
- 张慕, 『中国地带差距与中西部开发』, 清华大学出版社, 2000.
- 丁任重, 『西部大开发与地区经济协调发展问题研究』, 西南财经大学出版社, 2007.
- 曹桂全, “中國地區差距變動的系統分析與地區政策選擇”, 『中國軟科學』, 第12期, 2001.
- 中國經濟網([http://district.ce.cn/zg/201208/21/t20120821\\_23606435.shtml](http://district.ce.cn/zg/201208/21/t20120821_23606435.shtml))
- 中國國家統計局, 『新中國六十年統計資料匯編』, 北京:中國統計出版社, 2010.
- 中國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北京: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
- 中國法制出版社, 『社會主義新農村建設法律政策指導全書』, 北京:中國法制出版社, 2006.

ABSTRACT

An Income Convergence Analysis of Rural Residents in China

Choi, Sung-II(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Cho, Jun-Hyeon(Pusan University)·Piao, Hui-Lan(Pusan University)

The most serious issues of the recent Chinese economy are the three great disparity problems—the gap between regions,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the gap between classes. This paper did an analysis on the income convergence of China's rural residents and of three regions(eastern, central western), employing a panel data of Chinese provinces for the period of 1978~2011. The result shows that the income of rural residents has converged in all the three regions. While, prior to 2001, the level of income convergence was the highest in the central region. But, after 2001, the western region marked higher convergence than the central region. This means that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income level of the rural areas in absolute terms and to the improvement of the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residents in western region.

Keywords : Chinese Economy, Rural Economy, Income Disparity,  
Income Convergence, Western Development Project

투고일: 2013년 06월 21일, 심사일: 2013년 07월 05일, 게재확정일: 2013년 08월 06일